

경기교육, 2026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

4대 정책, 8개 주요과제, 22개 세부과제, 69개 실천과제 담아



경기교육이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공교육 변혁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6년도 4대 정책과 중점 추진 정책을 담은 ‘2026 경기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27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미래교육청’으로 새롭게 출발을 알린 바 있다.

2026 기본계획은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미래교육의 지속과 확장을 위해 경기교육의 비전, 목표, 기조와 4대 정책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밖에 정책 실행과 사업 추진 실천 내용을 8개 주요과제, 22개 세부과제, 69개의 실천과제로 설정했다.

2026 기본계획은 올해보다 정책과제의 개수를 줄여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또한 현장 참여 정책제안, 경기교육정책 현장 점검(모니터링), 학교 및 교육지원청 정책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해 교육 현장에 친화적인 정책으로 수립하고자 힘썼다.

송민수 기자

주요 내용으로 ▲학생 성장 중심의 평가체제 개선 ▲‘하이러닝’ 활용 맞춤형 교육 확산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 지원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확대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본격 운영 등이 있다. 먼저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전 학년의 모든 교과로 확대 운영하고 수행평가를 재구조화해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으로의 평가’를 강화한다. 향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해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하이러닝’ 기능을 고도화해 ‘학생 맞춤형 학습과 교사의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설계’를 적극 지원한다. 학교의 성공적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하이러닝’을 대한민국 미래형 교실의 표준 교수학습 모델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마음 공유 화해 중재단’ 운영으로 학교폭력, 학생 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 학교 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상호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에도 적극 노력한다.

이와 함께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확대 운영으로 학교 밖 교육이 지역사회와 연계된 새로운 학습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유학교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파주시,경기도농업기술원 등 선진기관 견학



파주시는 지난 25일 청년농업인 27명을 대상으로 소토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농업기술원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망 작목과 최신 농업 경향을 도입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연구·기술 지원체계를 직접 확인하며 실질적인 현장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날 청년농업인들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선진장대육식물연구소’, ‘차유 농업센터’, ‘스마트팜 온실’,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등 주요 연구시설과 ‘시합포장’ 등을 방문해 ▲첨단 농업 기술 동향 ▲품종 개발 ▲작목별 연구성 ▲

송민수 기자

‘스마트팜 원격제어’ 병해충 관리 기술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통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습득했다.

또한 청년농업인 선전자 선후배 간 정보 공유와 상호 교류를 통해 청년농업인 연계망을 확대하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다.

한 청년농업인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연구 현장을 직접 보니 새로운 기술과 품종 개발 방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농업 분야의 최신 경향을 농장 운영 방식에 접목해 점검해 보고 접단 농업 기술을 도입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병직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국내 농업기술 연구의 핵심 기관인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한 청년농업인들이 농업 분야의 시야를 넓히고 본인의 농업 현장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며 “파주 농업의 미래를 이끌 청년농업인들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겠다”라고 말했다.

성남시, ‘2025 K-팹리스 테크포럼’ 개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6일 오후 3시 판교 그라비티 조선포럼에서 ‘2025 K-팹리스 테크포럼 및 제3회 팹리스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남시가 주최하고 한국팹리스산업협회(KFIA)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내 팹리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남시는 2023년부터 KFIA·KETI와 함께 ‘시스템반도체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수요기업, 연구기관 등 100여 개 이상이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수요·공급기업 간 기술 매칭, 공

동 연구개발(R&D) 연계, 기술 교류 지원 등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기업 집적화를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K-팹리스 테크포럼’은 얼라이언스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암코리아(Arm Korea), 시놉시스코리아(Synopsys Korea), 지멘스 EDA 코리아(Siemens EDA Korea), 캐데나스코리아(Cadence Korea) 등 글로벌 EDA·IP 기업이 참여해 AI 기반 설계기술과 차세대 IP 등 주요 기술 동향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내 팹리스 기업들은 최신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글로벌 선도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확대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 시스템반도체 얼라이언스는 산·학·연·관이 긴밀히 협력해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 확산을 이끄는 모범적 모델”이라며 “이번 테크포럼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파트너와 협력을 확대하고, 성남이 대한민국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K-뷰티, 말레이시아 엑스포 1500만 달러 상담 성과

경기도, 11월 20일~11월 22일 3일간 K-뷰티 엑스포 말레이시아 2025 개최

도내 기업 50개사 포함, 화장품·헤어·원료·뷰티 디바이스 등 다양한 제품 전시

1:1 수출상담회에서 약 1,500만 달러 상담, 200만 달러 규모 계약추진

경기도와 쾨텐텍스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말레이시아 페낭 위터포르트 컨벤션센터(PWCC)에서 ‘2025 K-뷰티 엑스포 말레이시아’를 열어 1,500만 달러의 상담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엑스포는 K-드라마 등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말레이시아 시장을 동남아시아 내 전략적 수출 거점으로 확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도내 기업 50개사를 포함해 총 66개사가 참여해 화장품, 헤어, 원료, 뷰티 디바이스 등 K-뷰티 전반을 아우르는 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케이 메디테크 엑스포 말레이시아(K Meditech Expo Malaysia)’와 동시 개최돼 현지 바이어 151개사 및 소비자 등 7천여 명이 방문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경기도는 도내 참가기업 대상으로 부스 참가비, 통역비, 운송비 등 각사당 약 410만 원 감면을 지원했으며, 바이어 발굴 및 사후관리, KOTRA와 협업 등 참가기업들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다.

엑스포 기간 KOTRA와 공동 주관한 1:1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에



서는 총 1,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 중 200만 달러 상담의 계약이 추진되는 등 첫 개최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참가기업인 ‘로나스코스메틱’ 관계자는 “경기도 지원기업으로 참가하게 되어 부스비, 통역원, 운송비 등 많은 지원을 받아 감사했고, 현장 수출상담회에서 현지 바이어와 3만 달러 상담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좋은 성과를 얻게 되어 기쁘다”며 “말레이시아 시장의 K-뷰티 구

행사였다”고 말했다.

엄기만 경기도 바이오산업과장은 “첫 개최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상담액과 계약 추진 실적을 달성한 것은 경기도 기업들의 자력과 말레이시아 시장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 결과”라며 “도는 앞으로도 도내 뷰티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략적 해외 판로 개척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화성시, 돌봄 공백 대상자 에게 '단기 주거' 지원한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27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LH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 권운혁)와 ‘화성형 주거안심회복주택’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병원 퇴원 환자, 복지시설 퇴소자, 돌봄이 끊긴 위기가구 등 돌봄 공백 대상자에게 단기 주거와 회복 지원을 제공해, 시민이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안에서 머물며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화성형 주거안심회복주택’은 단기 주거 공간 제공, 보건의료 연계, 일상생활 돌봄을 결합한 원스톱 지원 모델로 운영되며, 입주자는 ▲회복주택 입주 ▲기능 회복 ▲귀가 등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장기적 통합돌봄 사업의 기획·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한다. LH는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안심회복주택으로 공급해 유지보수 관리하고, 시는 공급된 주택을 목적에 맞게 운영 관리한다.



이날 협약식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권운혁 LH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협약서에 서명하고 양 기관의 로고 판넬을 맞춰 ‘집’ 모양을 완성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퍼포먼스는 ‘필요할 때 곧바로 닿는 보금자리’라는 사업의 의미를 담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LH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돌봄 사각지

대 없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위기 순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집”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누구나 살던 곳에서 존엄을 지키며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군포시, 민선8기 공약사업 점검 보고회 개최

미완료 공약 집중 점검… 개선방안 마련에 속도



약 이행률은 83%를 기록했다.

올해 완료된 주요 공약으로는 △친환경 대중교통 확충 △청소년전용카페(Teen터) 확대 △다문화 교육 강화 등이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해 조속히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

며 신산업 기업 유치를 위해 AI·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 분야의 기업들과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군포시는 추진 중인 공약사업들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공약의 내실 있는 추진과 시민과의 약속 이행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하은주 군포시장은 “이번 점검 보고회는 공약사업을 시민 눈높이에 맞게 실질적·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특히 부진사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공약 이행률을 높이고 시민과의 약속을 책임감 있게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민수 기자

용인특례시, 다육식물 재배

농가 대상 전문 기술교육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6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다육식물 전문기술 교육’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용인시 다육식물연구회와 작목반 회원, 다육식물 재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최신 재배기술과 병해충 관리법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엔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이재홍 팀장이 강사로 나서 이상기온별 다육식물 재배관리기술, 주요 병해충 진단·방제 전략, 재배환경 개선을 위한 온·습도 조절 및 토양 관리 등을 교육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온과 병해충 증가 등으로 다육식물 재배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 농가가 전략적으로 관리법을 익혀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술교육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축만제 큰기러기

폐사체서 고병원성 AI 확진

수원시 팔달구 축만제에서 발견된 큰기러기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 수원시는 축만제 축만교부터 수질정화시설까지 산책로 출입을 통제하고 초동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애찰 활동을 강화했다.

수원시는 축만제에서 발견한 큰기러기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H5N1)가 최종 확진됐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폐사체는 지난 21일 축만제에서 주민이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수원시는 즉시 수거 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AI 검사를 의뢰해 26일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어 두 번째 큰기러기 폐사체를 발견해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고병원성 AI가 확인됨에 따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기도본부는 지난 24일부터 검출지 주변에 초동 방역을 실시했다.

'이천 부발~서울 잠실'

직행 광역버스 신설 확정

이천시는 부발읍에서 서울 잠실을 잇는 직행 좌석 광역버스 노선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신설이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신규 노선은 부발읍 응암리를 기점으로 신하리·증포동·백사IC를 거쳐 잠실광역환승센터까지 직행으로 연결된다. 최근 G2100번 노선의 혼잡이 심화되고 신규 택지 개발로 서울 통근·통학 수요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이천시의 주요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또 지난해 김경희 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이 대광위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등 근거자료 마련과 수요 분석을 통해 노선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신규 노선은 운송 사업자 선정과 면허 절차를 거쳐 2026년 중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통 시 G2100번 혼잡 완화와 잠실 방면 접근성 개선, 신규 주거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희 시장은 “운행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광역교통 확충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만다비 체육센터

및 가족센터 개관

포천시는 지난 26일 만다비 체육센터 체육관에서 만다비 체육센터와 가족센터 개관식을 개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체육시설 운영과 전 세대를 지원하는 보편적 가족복지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만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통합형 체육시설이다. 모든 공간에 무장애 구조를 적용했으며, 전문 인력 배치와 함께 장애인 친화형 수영장, 수중운동재활실,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실, 그룹운동실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장애인 유형과 연령대에 맞춘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가족센터는 가족 상담, 부모교육,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가족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통합형 가족복지 공간이다.